구역예배 말씀

제4권 (2단원 : 십자가의 도)

(제13과)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 **본문** : 빌립보서 2:5-11
- **요절**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 **찬송** : 101장(새찬송가 80장), 375장(새찬송가 375장)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어려운 훈련을 자진해서 받습니다. 그들이 받는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지옥 훈련'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런데도 그 힘든 훈련을 기쁨으로 받는 까닭은 시합에서 승리하고 우승했을 때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장차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생을 오히려 낙으로 삼습니다. 한편, 우리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달게 받으신 까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라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상)라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순전히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죄하신 분으로서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추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삼일만에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할 수 없는 영예와 권위를 예수께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무한한 영광과 존귀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세상의 심판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主)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받기만을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1,12)라고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천국에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진실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앞두고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으며(행 6:15),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숱한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조금도 괴롭게 여기지 않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고백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NO CROSS, NO CROWN.)"이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감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